

지역 메아리

김제시 참여형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은 2018년도 참여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김제시로부터 위탁받아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43명의 참여자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지원 및 직업생활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복지재단 등 총 13곳에 배치 돼, 사무보조,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기부물품관리, 급식지원, 버스청결관리 등의 직무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부녀회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 이어져

김제시 성덕면에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쌀과 기부금 등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성덕면 부녀회(회장 임금자)가 지난해 12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달라며 사랑의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역농업인 고상영씨가 쌀 10kg 70포대를 후원하였으며 남포마을 김행제 이장은 불우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올해 들어서마자 석동마을 이장업 전 농업경영인회장도 연시에 어르신 떡국이라도 대접해달라며 쌀 10kg 20포대를 면사무소에 가져왔고 지난 10일에는 두무동 박영운 이장이 쌀 10kg 70포대를 마을회관 등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기탁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정기본 등록면허세 늘어

완주군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완주군은 2018년도 정기본 등록면허세(면허)를 9225건에 1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완주군은 8708건에 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꾸준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면허와 허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1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본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령자 교통사고 대책마련을”

완주군, 교통안전 종합대책 정책토론회 지자체 대표 참석 의견 개선

완주군이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에서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오순석)가 지난 11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개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안전수준을 올리기 위한 범정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다.

지자체 대표로 참여한 완주군은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강 과장 이외에도 박정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 강규창 대전시 교통정책과 과장, 권호영 대전안실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 과장은 토론회에서 완주군의 고령화 추세를 설명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19.0%,



완주군이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에서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망자수는 24.5%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2% 증가하는 등 고령자 관련사고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고령자 사고 대책 관련 범국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량이나 마을진입도로 등 지방도 도로의 보도설치 및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의 교통안전분야 예산은 교통안전기본계획 투자사업비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광역차단체 심의를 통한 국가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통안전분야는 전문적인 지식 및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교통직렬 채용을 통한 교통안전분야 지속성 및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7일부터 23일까지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2순위) 입주자 모집한다.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8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도 주변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 전세임대주택(2순위)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7호를 포함한 기존주택 12호, 국가유공자 등 1호 전세임대 총 20호이다.

김제지역 지원한도액은 5,500만 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또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2순위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년 12월 29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LH는 약 2개월가량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임대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80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예비 창업자 사무공간 무료 지원

완주군이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를 위해 사무공간을 무료로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은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창업 3년 미만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없이 사무공간, 인터넷, 사무기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민간비즈니스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2일까지이며, 도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정책과 수요를 감안해 기존 4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확대 지원한다.

사무공간은 이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민간비즈니스센터인 스페이스코워킹과 패스트스타터센터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창업가 양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비즈니스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왔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5명 미만 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업, IT기반 서비스 등 372개 업종이 해당한다.

강령석 공동체활력과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 융복합산업, 사회경제적,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동체협력과(063-290-2482)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063-290-2487~8)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적극 나서

김제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취친 김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배너·안내판 등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하고, 관내 전광판에 안내문 표출과 김제시홈페이지 배너홍보, 고지서 홍보문구 기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Jinan Gowan Hongsamju.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wl of Hongsamju (ginseng wine) with a bottle of the product in the foreground. The text includes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Korea's Hongsam Special District Jinan Gowan),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Evaluation Award Gold Medal), and '眞心 홍삼주' (Sincere Hongsamju). The bottom of the ad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Jinan Hongsam, including the website www.jinansam.com and phone number 063-433-8398.